**(2)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지구촌교회 청빙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2019. 4. 28)**

DR. Chung,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ichael T. Galvin, I'm the Servant Leader of the Ordained Deacons of Tacoma First Baptist Church and I've been a member of TFBC for 32 year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very warm and gracious letter to TFBC explaining the events and process that took place in selecting our Senior Pastor as the next Leader of GMC. Wow, what a shock that was for us to hear this news and that he would be leaving us. We were very confused! How could this happen to us? How can this be! Many questions were coming our way from various church members, some even questioning the truthfulness of this whole matter. There was much confusion, sadness and doubt. In other words we were stunned by the news. We began to go through a very emotional me similar to loosing a close friend or love one passing away. Surely this is not how God works. Day after day more news wa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that Senior Pastor David Sung Eun Choi was the guy! From sadness to anger was my journey, disbelieving this whole matter.

Then we received your Letter of Explanation sharing the exact process that took place. I could not believe what I was reading. I began to weep like a small child! I could hardly read the letter through my tears. I cannot explain how I felt but I know it was your letter and God who touched my heart. My pain, sorrow and heartache of loosing our Senior Pastor was replaced by understanding and conviction that God is in control. How could I have had so little faith that God wouldn't take care of everything but he has. I completely trust in my Lord and Savior that this is his will and who am I to disagree or stand in the way of God!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nd the other representatives that will be taking me away from your work and your families to visit TFBC. We will be honored to have you here and begin our Partnership together. I am also hoping that we will be able to meet and sit together alone just to talk and share briefly this journey we are about to travel together.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Your Brother In Christ!

Michael T. Galvin

Servant Leader

(번역문)

정진상 박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32년째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로 섬기고 있는 마이클 갤빈 안수집사입니다. 우선, 저희 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님을 지구촌교회의 3대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은혜로운 편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성은 담임목사님께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소식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며, 교인 모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희는 여러 성도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몇몇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까지 이야기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이러한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가까운 친구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과 같은 매우 감정적인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식으로는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으로부터 최성은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올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저희는 슬픔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구촌교회의 청빙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한 정진상 청빙위원장님의 편지를 받았고, 저는 제가 읽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으며,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보내신 편지를 읽어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이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정 장로님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제가 느낀 아픔과 슬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수는 없다는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주님과 구원자의 뜻임을 전적으로 믿으며,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방문해주실 정진상 장로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구촌교회와 동역 할 수 있는 소망은 저희에게는 큰 영광이며,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한 자리에 앉아 앞으로 지구촌교회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될 여정에 대해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며, 또 소식 전해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을 담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된

마이클 갤빈 안수집사 드림